

고흥군, 전남 최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원

총 135명에 올해 상반기부터 월 7만원씩 지급 “사기 진작·복지환경 개선 통해 자긍심 고취”

고흥군은 전남 최초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전체 사회복지사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더욱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으로 업무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전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종사자 보수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적격자에 한해 올 상반기부터 월 7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자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등록)를 완료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대 보험 가입자이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근무자 등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금년도 신규로 지원되는 대상자는 88명이고, 기존 대상자 47명을 포함해서 총 135명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수혜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송귀근 군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면 결국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서

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지환경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사간 형평성 유지 및 권리옹호 등으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역량강화사업 등 다양한 노력으로,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종사자와 수혜자가 함께 행복한 고흥형 선진 복지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선샤인그린팜,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물품 전달

수제마스크 200장 새싹삼세트 30세트

(주)선샤인그린팜마을기업(대표 안은영)에서는 지난 20일 광양시청 시장접견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의 일환으로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이사장 서경석)에 수제마스크 200장, 새싹삼 종합세트 30세트 등 19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주)선샤인그린팜 안은영 대표는 “어느날 광양시청에 방문하여 일을 보다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 현장에서 민원인의 노함에도 밝은 표정으로 응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누게 되었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모두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시청 정현복 시장은 “우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임에도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신 선샤인그린팜 안은영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19 발생시점부터 현재까지 광양시민을 위해 마스크구입, 방역 및 민원해결에 직원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줘서 청정한 광양시를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 까지 광양시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랑나눔복지재단 김점현 사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고 지친 공무원들에게 긍정에너지를 불어 넣어주시는 선샤인그린팜 안은영 대표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이어지는 온정의 손길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동부취재본부 정선웅 기자

광주 서구, 마스크 구매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나눔 실천



원봉사단이 연계한 봉사로 마스크 3천개가 제작됐다.

또, 아모레퍼시픽 광주지역 사업부에서는 직원들이 손바느질로 500장을 제작해주는 등 많은 봉사자들이 재능을

많은 자원봉사자 도움으로
총 4천장 면마스크 마련해

광주 서구는 20일 서구청에서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제작한 위생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물품은 지난 4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제작한 면마스크 4천장(성인용·아동용 각 2천장)과 천연비누 1천개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끝에 완성됐다.

물품은 광주클로버 봉사단 및 청각장애인 자원봉사자, 상무2중 자

기부해 총 4천장의 면마스크가 마련됐다.

서구장애인복지관은 이번 ‘제40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구 장애인복지관 위생용품 전달식’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인 서구관내 장애학생 및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물품을 배부할 계획이다.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 이대만 관장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을 위해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배부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참여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국철도 전남본부, ‘장애인의 날’ 사회공헌활동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대상, 방역봉사활동 및 행복꾸러미 전달

한국철도(코레일) 전남본부 사회봉사단은 최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순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활동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지역 장애인을 위로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시행됐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매일 수시로 역과 열차를 소독하고 있는 전남본부는 자체 방역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직접 복지관 전체를 방역 하

였다. 특히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손 소독제와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행복꾸러미도 전달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양숙 전남본부 사회봉사단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장애인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뜻깊고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취약시설에 대한 지원과 봉사를 통해 공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부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